



루마니아 선교편지

2023. 12. 18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온전한 신앙으로 늘 자라가길 소망하며 구원의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곳 루마니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 주일학교에 마음을 쏟으며

선교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지지만 늘 변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입니다. 유럽의 세속화의 홍수가 동유럽의 모퉁이 가난한 집시아이들의 삶속에도 스며들고 있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붙여주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새롭습니다.

1. 뜨르너베니 교회의 주일학교

한동안 주일학교가 진행되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겨 중단되었는데 새로운 도전을 받아 2개월전부터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파네 전도사와 사모, 그리고 젊은 안수집사 아디쇼르가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꾼들이 다음세대의 비전을 품고 주일학교를 잘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2. 펠디와라 교회 주일학교

주일학교와 함께 청소년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펠디와라 청소년들이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대학보다는 직장이나 외국에 돈벌러 나가기에 말씀과 기도 훈련을 생활화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살고 또한 복음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며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은 아라치 교회 주일학교의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3. 아라치교회 주일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주일학교를 통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 감사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신앙으로 교육하기가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마다 일부 아이들은 깨우며 불러 모아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이 세

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중 일부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누적해서 암송하는 가운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성탄절엔 성탄선물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 펠디와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달 한 번씩 교회 주변으로 나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12월 17일)에는 초청전도주일로 보냈는데 가족구원과 주변 친지들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초청하였습니다. 최근엔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중국인부와 이들이 전도한 중국인 한 분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펠디와라 교회는 3가지 목표, 즉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삼는 교회, 그리고 후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올 한해동안 영적으로 성숙하여 졌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 현지 목회자 기도모임과 목회자 수련회

매주 모이던 현지 지도자 기도모임은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매주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 사역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며 브라쇼브 지역에 성탄선물을 나누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일학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매주일 모여 사역을 나누는 가운데 협력하며 기도에 더욱 힘쓰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현지 여성사역자 수련회를 가졌는데, 내년 5월에는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목회자들이 귀한 은혜와 도전을 통해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주일학교가 굳건해지고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2.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가 깨어 기도하도록
3. 현지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맡겨진 교회를 잘 섬기도록
4.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서며 성령 충만하도록

* 총회후원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 (GMS배만주)

올 한해도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 넘치는 새해 되시길!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경진, 예진)선교사 드림